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청년문화 2020 성경: 마태복음 11장 25~30절

Tag: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5-30)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

어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반성하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큰 교회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큰 교회들 때문이 아니다.

청년들이 큰 교회로 갔기 때문에 청년들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 떠나고 남아있는 청년들이 큰 교회로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큰 교회로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지도 때문이고, 끊임없이 부목사를 배출해서 각지로 떠나 보내기 때문이고, 또 교통이 편리해졌고 앞으로 더욱 더 편리해 질 것이며, 큰 교회는 각종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실은 큰 교회로 성도들이 쏠린다. 유독 청년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은 큰 교회 때문이 아닌 셈이다.

중앙대학교 대학교회 이혁기 목사님이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다.

90년대 생들의 특징을 정리하셨다. (김향 전도사가 90년 생이다.)

1. 거대담론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민주, 인권, 통일,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등) -거대담론에 헌신하지 않는다. 헌신하는 것을 어리숙한 자로 여긴다.

2. 소확행을 추구한다. 학생들이 총학에 대한 관심이 없다.(축제용 총학)

3. 헌신적, 자기희생적 존재이기를 거부한다. -반면에 스펙을 쌓아 안정적인 직장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아프면서 성장하느니, 안 아프고 성장하지 않기를 선택한다.(엄마가 대신해서 노력해서 성장시켜 준다.)

-아프면서 성장한 많은 선배나 동료들이 직장 없이 떠도는 것을 많이 보면서.

-80년대 생들은 아프면서 성장하면서 자리 잡았다.

-70년대 생들은 X세대다. 대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세대이지만, IMF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해 비판적인 세대가 되었다.

-60년대 생들은 민주화 운동 하면서 이제는 어엿한 꼰대로 자리 잡았다.

-50년대 생들은 산업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일하면서 가족 형제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40년대 생들은 6.25를 거치면서 태극기 부대로 재 탄생하였다. 역시 나라를 지키는 세대.

-30년대 생들은 절반은 일본인 절반은 한국인이다. 극소수 할머니들이 위안부 코스프레 하고 있다.

4. 인터넷 때문에 정보력이 대단하다. 활동무대가 세계적이다.

-이점은 90년생이 훨씬 더 유리하지만, 그러나 현대는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한국사회라는 인프라 때문에 모든 연령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세상은 실제 경험, 전문 지식, 정보력, 열정, 경건의 능력을 요구할 뿐이다.(스펙은 덤일 뿐)

우리나라는 90년 민주화 이후로 급격한 문화적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았다는 점이다. 경제 글로벌화가 진행 되면서 금융혁신, 기술혁신, 유통혁신, 산업혁신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경제적인 부흥은 문화 곳곳에 청신호를 보내서 한국교회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함. 대부분은 60-70년대 산업화로 인한 열매들이었다.

부정적인 측면.

반면 사상과 정치적 자유에 기생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성주의, 탈 윤리주의 등의 영향으로 그동안 유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사회문화는 점점 좌편향화 되어갔다. 프랑스 68혁명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함.

그러다 갑작스럽게 정치경제적 방종의 결과로 IMF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이제 제2차 IMF가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다.-만약 현 정권의 무능이 계속된다면.)

60년대생들이 서서히 사회적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반공교육이 그쳤으며, 결국은 종북 종중 주의자들에 의해서 정부가 장악되었다.

90년대에는 반공교육이 끈대들의 교육이었다면, 현재는 종북교육이

꼰대들의 교육이 되었다.

90년대 생들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줄 것.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친구가 되어줄 것. (형 오빠가 언니가 되어라. 돌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가?) (권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돈 지값? 지적인 이미지? No. 외모. 스타일. 감성. 말투... 핵심은 카리스마)
2. 과거의 사고방식은 흘러갔다. 함께 공감세대가 되어야 한다.
3.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지 말라. 유혹하되 끌어당기지 말라.
4. 젊은이의 정보력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라. 현재 모르더라도 그것이 흠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금방 배운다.
5. 유쾌함이 없는 진지함은 No!
-진지함을 잃지 않는 유쾌함이 중요함.

그렇다면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정보력의 핵심은 역시 영적 정보력이기 때문이다.

카리스마가 중요하다. (외모, 스타일, 감성, 말투는 기독교 카리스마의 전유물.)

세대를 초월해서 문화는 카리스마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별된다. 카리스마가 갖추어졌다면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카리스마의 핵심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자.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잘난척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없는 카리스마.

오히려 어린 아이들 같은 자들에게 있는 카리스마. 왜?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카리스마이기 때문.

내가 당당한 이유. 내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

젊은이여 끈대는 싫더라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그가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시하신다.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다.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은 귀신에게 휘둘리며 세월을 허송한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진위성을 가름한다.

27절이 카리스마의 핵심 키포인트.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짐, 미래의 짐이 가벼운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 짐은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신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스펙의 멍에, 취직의 멍에, 결혼의 멍에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와 주신다. 그가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주신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예수님과 식사를 합시다

성경: 요한계시록 3:20

Tag:

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3:20)

-혼밥과 더불어밥은 큰 차이가 있다.

-혼밥은 에너지 충족

-혼밥은 시간 절약

-혼밥은 편리함을 의미함.

-더불어밥은 합주회

-식사는 먹는 일. 신체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 (링겔, 미움, 죽파는 차원이 다르다)

-함께 식사란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적인 것.

-친밀감을 나타냄.

-화목하고 사랑스럽고 행복감을 내포함.

-편안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일.

-더 깊은 일은 이어지는 티타임으로 완성됨.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일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함.